

월간미술



338

www.monthlyart.com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3년도 우수콘텐츠 잡지

9 771227 312009
ISSN 1227-3120
03



2011년 4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학익동에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작업해온 2기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 <여덟 개의 창(窓)전>이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OCI미술관에서 열렸다. 여덟 명의 참여작가(윤기연 임현경 김유정 박종호 유씨우 이주리 조태광 김시현)는 입주기간동안 1대1 비평가 매칭프로그램, 내·외부 토론회와 초청 등을 통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시도해왔다.



다른 표현방식, 다른 시선을 가진 3명의 작가가 모여 전시를 열었다. 갤러리 bk에서 1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린 강민수, 장현주, 조태광의 3인전 <vue>가 바로 그것. 어린아이의 모습과 그들과 연관된 소재 표현으로 캔버스를 채운 강민수, 강렬한 색채로 현실과 초현실,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 있는 장현주, 마치 동화책을 연상시키는 주제와 색채의 조태광, 그들의 시각(vue) 차이를 드러내는 전시이자 사유가 결합하는 전시였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 요절한 작가 장 미셸 바스키아.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은 여전히 그의 작품 앞에서 열광한다.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국제갤러리 K2, K3(오른쪽 아래 사진) 전시장에서 바스키아의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지난 2006년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바스키아의 전시는 1980년대 미국 팝아트의 문화적 부흥에 따른 당시의 사회상을 반추하는 작품이 선보인다. 특히 영웅적 흑인이콘(예를 들면 당시 흑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재즈 음악가 찰리 파커, 야구선수 헝크 아론), 만화, 해부학, 낙서, 인종에 대한 그만의 시적이고 상징적인 문구는 시대적 하위문화의 정치적이고 자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